

청화소다 수요 소폭 증가

환경규제 등으로 수요 감소할 듯 ... 공급과잉 여전

국내 청화소다 시장이 극심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침체와 수요저조에 따른 도금용 시장의 위축으로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청화소다 수요가 94년 이후 화학산업의 호황에 편승, 청화소다를 주원료로 하는 국내 화학제품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화소다는 동서석유화학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연산 2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석유화학은 연간 2만톤의 청화소다를 생산, 내수에 3000여톤정도 종합상사를 통한 대리점판매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만7000여톤을 직수출 및 대항수출 방식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4년 통관기준 국내 청화소다 수출실적은 약 1만 6383톤으로 93년대비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출국 현황을 보면 국교 수립후 주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8531톤(971만5000달러)으로 전

청화소다 수출현황 (단위 : M/T, 1000달러)				
구 분	1993		1994	
	중 량	금 액	중량 (1~11)	금 액
중 국	8,432	7,887	8,531	9,715
인도네시아	-	-	3,488	3,530
필 리 핀	1,611	1,415	2,502	2,780
홍 콩	-	-	105	235
말레이시아	90	82	135	182
크로아티아	151	158	45	54
기 타	1,467	1,243	170	288
합 계	11,721	10,785	14,976	16,784

체 수출물량의 약 58%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가 3488톤(353만달러), 필리핀 2502톤(278만달러), 그리고 기타 국가가 1862톤(75만9000달러)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가격은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3 4년전의 톤당 3000달러보다 크게 하락한 톤당 9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 청화소다 생산능력은 55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Dupont, 독일의 Degussa, 영국의 ICI, 이태리의 Enimont, 일본의 일본소다 등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는 금광채굴용, 도금용 및 청화소다를 이용한 청화동, 청화아연 등의 2차 도금약품용 등 화학공업용으로 연간 50만톤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나 5만톤정도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이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청화소다의 가격하락에 따라 청화소다 생산기업들은 수익성확보를 위해 청화소다의 원료인 HCN을 수익성이 좋은 타제품 생산에 전용하여 청화소다 공급량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도금업이 점차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화소다의 국내수요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5/4/3>